



영화관

어린이라는 세계

2월 초,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영화 '승리호'가 화제다. '승리호'는 240억원이라는 제작비가 투입된 국내 최초의 우주 배경 장르물이라는 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같이 할리우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장르에 드디어 한국인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니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다.

공개 후 영화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한국형 신파가 우주 영화라는 개척지에서도 굳이 필요했느냐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이 정도면 첫 술에 충분히 배부른 결과라며 기술적 완성도에 특히 흠족해하는 이들도 많다. 큰 기대를 안고 영화를 본 나는 비판과 만족 사이 어디쯤에서 재미와 가웃거림을 동시에 안고 '승리호'에서 내린 승객이었다. 들iesel 썬 휘둥그레 눈을 찔지만 타는 내내 그다지 긴장감이 있던 비행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구경거리가 없었나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장현숙 선장과 업동이 언니 같은 사람 구경이 제일이었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 우주를 유람하며 흥이 났던 순간도 적지 않았다. 모난 데 없이 둥그렇게, 마치 유람선 같은 동선을 켜 '승리호'는 여러모로 적당한 영화였다.

다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 받는 영화 '승리호'가 그에 걸맞는 두고두고 회자될 새로운 이야기였나 하면 그것에는 조금의 문을 갖게 된다. '승리호'는 명백히 우주로 간 조성희 감독의 영화다. '늑대 소년'과 '탐정 홍길동' 같은 세계관, 그 연장선상에 놓인 작품인 것이다. 분명 우주로 나아가며 기술력은 진일보했지만 감독의 세계관은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조성희 감독의 세계는 처음 보는 우주의 풍경들이 등장한 덕에 일견 낯설게 보이지만 사실은 늘 그랬듯 사랑스러운 동화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영화에 가장 먼저 태우는 캐릭터가 어린이여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조성희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영화 '승리호' 속 어린이 캐릭터 꽃님.

가지로 '승리호'는 꽃님이자 로시인 어린이 캐릭터가 어른들을 구원하고 어른들로부터 구해지는 영화다. 조성희 감독은 어린이 캐릭터를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극의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그는 어린이의 대사와 몸짓을 통해 극 중 어른 캐릭터는 물론이고 어른 관객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남매의 집'부터 '늑대 소년'과 '탐정 홍길동'까지 조성희 감독은 어린이의 손을 잡지 않고는 이야기를 걸어가지 못했던 창작자다. '승리호'의 복잡하지 않은 서사를 강화시키는 이룰테면 권선징악의 구조를 그대로 우주로 데려간 조성희 감독은 무엇보다 어린이가 갖고 있는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 골몰한다.

전작 '탐정 홍길동'에서 어린이 캐릭터인 말순이가 가지고 있던 파괴력은 바로 극의 재미이자 핵심이 됐다. 주연인 홍길동보다 먼저 관객의 마음을 훔치고 들려주지 않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다. 아쉽고 흥미롭게도 '승리호' 또한 여전히 성인 배역들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한 영화다. 이 작품에서 성인 캐릭터들이 어린이라는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장면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면적이다. 늑대 소년이 살고 있는, 홍길동이 찾아다니는, 꽃님을 잃어버린 공간 속에서 조성희 감독은 여전히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있다. 나는 '승리호'의 장면 중 꽃님이 그린 그림 앞에 멈춘 어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처음 보는 우주의 풍경들이 등장한 덕에 일견 낯설게 보이지만 사실은 늘 그랬듯 사랑스러운 동화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영화에 가장 먼저 태우는 캐릭터가 어린이여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조성희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 무엇보다 ‘관심’ 중요



늘어나는 노령견 건강관리 어떻게?

소아·청년·장년·노년기로 생애 구분  
병원진료 노령견 비중 전체 40% 차지  
7세 후 부터 보호자 세심한 관리 필요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트레이 아이드 커교수 연구팀이 만든 공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공식은 '인간 나이=16ln(개 나이)+31'이다. 다시 말해 개 나이의 자연로그 값에 16을 곱한 다음 31을 더하면 된다. 1살=31살, 2살=42살, 3살=48.6살 이런 식이다. 어린 강아지는 대략 7주=9개월, 10개월=사춘기이다. 필자는 성견 나이 계산을 간단하게 (개 나이×4)+24 공식으로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평균 수명이 약 16년 정도이지만 대형견은 조금 짧고 소형견이 조금 더 길다고 한다. 이 경우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같은 동물이다. 그렇다. 건강에 요령은 없다.

개에게 있어 생애 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아기이다. 출생부터 생후 6개월까지이다. 생활습관과 성격이 정해지며 기초적인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청년기이다. 생후 6개월부터 2-5년의 개로서 이 단계에 대한 연령의 범위는 견종에 따라 다양한데, 그 이유는 대형견 품종의 개는 청년기가 짧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장년기이다. 생후 2년부터 5-12년의 개다. 이 시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대형견 품종에게는 짧다. 네 번째로 노년기이다. 장년기 다음에 오는 시기이다.

근래 들어 노령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반려견이 지금에 이르러 노령견이 된 까닭일 것이다. 또한 수의학의 눈부신 발전 또한 우리 반려견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공헌을 했다. 그로 인해 노령견 질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대략 병원을 찾는 노령견 비중이 40%는 될 것이라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동물 병원 내에서는 7세 후의 개를 노령견이라 일컫는다. 신체 상태, 장기의 기능, 감각기능, 정신적 기능 및 면역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의 개의 건강은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시기부터는 체중의 변화를 잘 기록해야 한다. 장년기 동안 개의 체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식이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또는 급격한 체중 감소는 몸의 이상신호이므로 반드시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장기의 기능부전을 검사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요검사를 한다. 이 검사를 통해 외관상 건강하게 보이고 예전에는 드물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됐지만 실제로는 흔하게 발생하는 많은 질병을 사전에 알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내·외부 기생충구제를 한다.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 우리 멍멍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나이든 개를 데리고 동물 병원을 방문하면 수의사는 질문할 것이다. 배변, 배뇨의 변화, 명령이나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의 변화, 근육 쇠약이나 방향감각 상실, 수면각성 주기의 변화,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장애, 지속적인 짖음,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지, 병원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時間**

문창배 초대전

2021.02.18(목) ~ 04.16(금)  
전시오픈 2021.02.18(목) 오후3시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日)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리일보 1F Gallery ED